

2025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세부유형	순수학문연구형 - ① 논문/저역서				
신청기관	대학(기관)	경북대학교		소재지	대구
	연구소	연구소명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연구소장	김민아	설립일자	2016-11-03
		홈페이지	http://www.ires.co.kr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지원이력	해당 없음			
연구과제명	국문	폭력의 시대, 이야기하는 인간: 호모 파블란스의 존재론			
	영문	Storytelling Human in the Age of Violence: The Ontology of <i>Homo Fabulans</i>			
연구책임자	성명	윤영순	소속학과	노어노문학과	
연구분야	연구분야-1	연구분야-2		연구분야-3	
	분야	기타러시아문학 (러시아어와 문학)	기타일본문학 (일본어와 문학)	기타독일문학 (독일어와 문학)	
	비율(%)	50	30	20	
	연구기간	6년	2025. 9. 1 ~ 2031. 8. 31.		

□ 연구 요약

<p>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p>	<p>우리 연구는 지난 20세기, 폭력이 국가 이념과 결합하여 극단적인 전체주의의 형태로 드러났던 러시아와 독일, 일본 세 나라를 중심으로,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인간 존재론의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폭력과 서사의 관계를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 벡터 간의 상호 작용에서 살펴보고, 통시적으로는 지난 192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즉 ‘호모 파블란스’가 존재해 온 방식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단은 이야기하는 존재, 서사를 구성하는 존재로서 ‘호모 파블란스’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폭력의 시대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서사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난 세기 전체주의 이념이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으로 나아갔던 러시아, 독일, 일본에서 권력과 매체, 폭력과 언어, 인간과 서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찰한다. 2. 연구의 틀인 세 가지 언어 벡터, 즉 군림하는 언어, 저항하는 언어, 드러나지 않은 언어를 정의하고 이들 벡터의 상호 작용을 고찰하며,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호모 파블란스의 개념을 정립한다. 3. 호모 파블란스가 이 세 언어 벡터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통시적으로 지난 백여 년에 걸쳐서 살펴보고, 러시아, 독일, 일본에서 그 발현 양상의 공통점과 변별성을 연구한다. 4. 러시아, 독일, 일본 등에서 ‘호모 파블란스’의 존재 양상을 잘 보여주는 서사 작품들을 발굴하고 이를 번역하며, 연구의 성과를 E-아카이브로 구축한다.
<p>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p>	<p>인문학 연구를 통한 유무형의 미래 효용가치 증대</p> <p>이 연구는 전쟁, 독재, 파시즘 등 인류 보편의 폭력 경험과 이에 관한 기억과 서사를 러시아, 일본, 독일의 경우를 통해 분석하고 고찰한다. 이 연구는 평화교육 콘텐츠 개발, 과거사 관련 공공자료 제작, 박물관과 기념관 전시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환류와 공공 활용 가능성을 지니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국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또한 우리 연구는 문학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등,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p> <p>지역사회 시민 교육과 시민 인문 역량 강화</p> <p>이 연구는 거시적 역사 서사를 문학과 기억을 통해 조망하면서 그 속에 포착되지 않은 개인의 일상과 감정의 기록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기, 수기, 편지 등 개인 기록에 기반한 일상사 연구는 지역사회 시민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의 사회적 확산은 물론, 인문학적 감수성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 연구는 지역 시민을 위한 인문 소통 콘텐츠 개발과도 연계 가능하다. 다양한 교재, 디지털 콘텐츠, 구술 아카이브 등은 대학 기관은 물론, 지역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교양강좌나 인문학 강</p>

연에 국한되었던 인문교육의 한계를 넘어, 삶의 맥락 속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실천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연구 결과물은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 공연, 인문 페스티벌 등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구술 채록, E-아카이빙, 콘텐츠 제작 등의 과정에서 지역 청년 인문학 전공자를 참여시켜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문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다.

문화외교 자산으로서 인문학 역량 강화, 국가 소프트파워 확장

우리 연구는 러시아, 일본, 독일 3국을 기반으로 폭력과 기억의 서사를 비교문화적, 학제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한국 인문학이 국제적 인문·사회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인문학이 타자의 기억과 침묵에 응답하며, 서사의 윤리를 사유하는 해석 공동체로서의 지적 역량과 감수성을 국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3국의 공동연구 및 향후 해외 연구자들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향하여 번역, 국제학술지 게재, 총서 출판,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 인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외교 자산으로서 인문학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가의 소프트파워 확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지역과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 융합 연구 모델 구축

본 연구는 폭력, 파시즘과 같은 20세기 인류사의 위기가 러시아, 일본, 독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개인이 어떻게 이에 조용하는지를 언어, 문학,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고찰하는 융합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 연구는 단일 국가나 언어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서사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폭력의 기억과 재현 양상이 어떻게 구축되고 전유되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문예학적 텍스트 분석과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문화학적 해석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분과학문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의미망을 찾아내어 **학제간 융합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 분석 패러다임의 공유로 인접 학문 분야로 연구 확산

본 연구는 러시아, 일본, 독일이 등 극단적 전체주의나 국가 폭력을 경험한 사회에서 기존 서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개인의 목소리와 경험을 발굴하고 그들의 언어와 기억을 서사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는 전후 문학과 여성 서사, 이주 난민 문학과 경계의 서사, 검열과 저항의 문학, 트라우마와 서사적 기억, 디지털 인문학과 기억 아카이빙, 다국어 문학의 교차 번역연구,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체성 서사 등 폭력의 개인화된 경험과 문화적 트라우마의 재현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심화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로 확장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전쟁과 분단, 독재의 역사를 호모 파블란스의 존재론이란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학제적 분석 틀**

	<p>을 제공 가능하다.</p>
<p>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p>	<p>우리 연구는 20세기 이후 인류가 경험한 극단적 폭력의 시대를 ‘호모 파블란스’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이 시기를 관통하는 언어적 실천을 ‘언어 벡터’라는 틀을 통해 다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p> <p>우선 우리는 ‘호모 파블란스’는 인간을 “이야기를 만드는 자”, 즉 서사적 상상력과 서사구성 능력을 지닌 존재로 정의한다. 호모 파블란스는 인간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사를 만들고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살아내는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p> <p>여기에 우리는 20세기 극단주의적 폭력의 양상이 가장 위협하게 드러났던 러시아와 독일, 일본에서 호모 파블란스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언어 벡터’ 개념을 통해서 분석한다. ‘언어 벡터’는 극단적 폭력의 시대를 해석하기 위해 제안하는 분석 도구다. 이 개념은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힘과 방향성을 지닌 행위적 실천으로 재정의하며, 군림하는 언어(권력 벡터)·저항하는 언어(저항 벡터)·드러나지 않은 언어(은닉/잠재 벡터)를 통해 거대서사와 호모 파블란스의 언어적 역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p> <p>1단계에서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시기적으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시기는 전체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전쟁 등의 폭력이 극단의 형태로 치달았으며, 언어와 권력의 관계가 가장 첨예한 긴장 관계에 있었던 시기였다. 연구는 이 시기 언어를 군림하는 언어, 저항하는 언어, 드러나지 않은 언어의 세 가지 벡터로 구분하여, 호모 파블란스의 존재 양상을 연구한다.</p> <p>1차년도에는 ‘극단적 폭력의 시대’와 ‘호모 파블란스’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인간이 언어와 서사를 통해 폭력의 시대를 감각하고 대응해 온 방식을 존재론적으로 재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 벡터’ 3항 구조의 분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벡터가 사회적 위치, 정치적 압력, 감정적 과장에 따라 교차적으로 작용한 양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폭넓게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자료의 번역과 주해를 통해 다언어·다문화적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며, 문학 텍스트, 구술 자료, 시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2차년도에는 군림하는 언어와 저항하는 언어의 심층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 권력, 전체주의 체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등 제도화된 권력이 생산한 언어 흐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상명하복적 구조와 수직적 전달, 명령형 담화 등 권력 언어의 특성을 규명하고, 법령, 연설, 선전, 대중 매체를 통한 감정 조작과 가치 통제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분석 자료로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라디오 선전, 스탈린 연설문, 일본의 칩어나 교과서 등 황민화 교육 자료 등이 활용된다. 저항하는 언어(저항 벡터)는 지배적 언어 체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감응과 인식을 조직하려는 서사적 시도를 조명한다.</p>

	<p>3차년도에는 드러나지 않은 언어, 즉 은닉/잠재 벡터의 정서적·시간적 작동 방식과 개인적 기록(일기, 편지, 자서전, 증언, 인터뷰, 회고적 구술 등)을 분석하고, 2차년도 군림하는 언어(권력)·저항하는 언어(저항) 벡터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언어(은닉/잠재) 벡터의 윤리적 지형을 규명한다. 드러나지 않은 언어 벡터는 권력이나 저항이라는 이분법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미시적 층위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언어 흐름을 의미한다. 분석 자료로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일기, 민주개척단의 기록, 근대전환기 여성들의 자기서사, 가족 기록 아카이브, 공동체의 비공식 메모리 북 등이 포함된다.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침묵, 지연된 감정 발화, 애도 불가능성 등 잔향적 언어 실천을 해석하고, 3개 벡터의 상호 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호모 파블란스의 실천적 의미와 이론적 통합을 시도한다.</p> <p>2단계(1차년도~3차년도): 냉전·탈냉전·신냉전 시기별 연구</p> <p>2단계에서는 연구의 시기적 범위를 1945년 이후로 확장하여, 냉전(1945~1990), 탈냉전(1990~2010), 신냉전(201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해 각 시기의 언어적 실천과 서사, 그리고 '언어 벡터'의 작동 양상을 분석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전후 세계질서의 변화, 이념 대립,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 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언어 벡터의 역할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며, 호모 파블란스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시기별로 주요 사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권력, 저항, 은닉/잠재 벡터의 상호 작용과 감정 역학, 그리고 서사적 실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언어 벡터의 이론적 틀을 시대별로 확장·심화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호모 파블란스의 존재론적·윤리적 함의를 재정립한다.</p>
<p>키워드 (Keyword/ 한글)</p>	<p>폭력, 전쟁, 호모 파블란스, 언어 권력,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냉전, 신냉전, 기술 전체주의, 신자유주의, 서사, 일상사, 이야기, 매체, 스탈린, 스탈린주의, 히틀러, 천황제</p>
<p>키워드 (Keyword/ 영어)</p>	<p>Violence, War, Homo Fabulans, Language Power, Russia, Japan, Germany, Korea, Totalitarianism, Nazism, Fascism, Militarism, Imperialism, Colonialism, Cold War, New Cold War, Technological Totalitarianism, Neoliberalism, Narrative, History of Everyday Life, Story, Media, Stalin, Stalinism, Hitler, Tenno System</p>